

블랑팡(Blancpain)의 메티에다르(Métiers d'Art) 스튜디오는 스위스에 경의를 표합니다.

블랑팡(Blancpain)과 하우스의 메티에다르(Métiers d'Art) 스튜디오는 브랜드가 즐겨 사용하는 샤쿠도(shakudō) 합금과 골드 소재를 사용하여 마터호른(Matterhorn)의 앞마당에서 열리는 스위스 전통 소싸움 대회인 “여왕의 결투 (Battle of the Queens)”를 묘사해낸 특별한 모델을 선보인다.

이 소싸움 대회에 출전하는 소의 품종은 세계적으로 희귀종에 속하는 에렝(Herens)으로, 자그마치 1861년부터 스위스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조상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미 스위스 남부에 위치한 발레(Valais) 주(州)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의 고집 센 성격과 짧은 다리 덕분에 3,000미터 이상에 이르는 높이의 산도 문제 없이 오를 수 있었다. 잘 알려져 있는 전통 소싸움 대회는 매년 봄, 겨우내 헛간에만 머물던 소들이 방목을 위해 알프스 산맥의 목초지를 오르기 시작하는 의식 중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강인하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이 소들은 무리 중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 그들의 머리와 뿔을 서로 맞부딪치며 싸움을 한다. 상대편 소가 방향을 바꾸어 달아나거나 항복의 의미로 싸움을 거부하게 되면, 비로소 승자가 된다. 토너먼트 방식의 대결이 모두 끝나면 이 싸움의 최종 승자가 바로 가장 강력한 암소, 즉 “여왕소”로 지정되며, 무리가 목초지에서 이동할 때 이를 이끌게 된다.

이 모델의 다이얼에는 소싸움 이외에 또 다른 스위스의 상징물을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전설적인 산 마터호른(Matterhorn)이다. 높이는 해발 4,478m에 이르며, 피라미드 형태와 닮아 있어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다. 등산가들에게 있어 이 산을 등반하는 것은 여전히 상당한 상징성을 지닌다.

샤쿠도(Shakudō) 와 로큐쇼(rokushō)

샤쿠도(Shakudō)는 골드와 구리로 이루어진 합금을 이르며 역사적으로 검, 장식품, 장신구 등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던 것으로, 이를 주로 사용하는 장인들은 보통 샤쿠도 소재에 인그레이빙을 하고 장식을 더했던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블랑팡의 타임피스에서 소싸움을 묘사하고 있는 다이얼 아플리케(applique 덧대어 장식하는 장식물) 부분은 골드

소재로 되어 있다. 이는 샤쿠도 소재의 다이얼 밑판에 고정된 후 특별한 용액에 담가서 녹청을 입히는, 로큐쇼(rokushō)라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 용액에 몇 번,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담가두느냐에 따라 녹청의 빛깔과 그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인의 숙련도와 심미안이 중요하다. 다이얼 위 블랑팡의 로고와 마터호른은 블랑팡의 장인이 다양한 인그레이빙 도구들을 사용하여 샤쿠도 다이얼 위에 핸드 인그레이빙한 결과물이다. 레드 골드 소재로 만들어진 소 형상의 목줄 부분은 다마스크 상감 기법을 사용하여 옐로우 골드로 표현했다. 다마스크 상감기법(damascening)은 장식하고자 하는 소재의 표면을 원하는 모양으로 파내어 그 골을 금이나 은처럼 진귀하고 부드러운 금속으로 채워 넣은 후 망치로 때려 평평하게 만들고 광을 내어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무브먼트(movement)

이 새로운 블랑팡 타임피스 는 기술적으로나 심미적으로나 기존의 모델들과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42mm 사이즈에 핸드와인딩 칼리버 13RA를 탑재하고 있어 무브먼트 뒷면의 브릿지에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개의 연속된 메인스프링 배럴 덕분에 8일에 이르는 파워리저브가 가능하며, 시계의 일정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첫 번째 배럴은 두 번째 배럴로, 두 번째 배럴은 세 번째 배럴로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또한 시계의 정확성 또한 보장해준다.